

사노피, 희귀질환 인식 개선 캠페인 '착한걸음 6 분걷기' 성료... 시민 58,457 명 참여하며 가족검사의 중요성 알려

- * '착한걸음 6 분걷기' 캠페인 지난 23 일 성료... 희귀질환 인식 개선에 기여
- * 적극적인 시민 참여로 '워크온' 걷기 챌린지 시작 사흘 만에 목표 걸음 수 10 억 보 돌파
- * 지난 13 일 진행된 세빛섬 야외 행사에는 시민 약 2,000 여 명 동참

대한민국 서울, 2023 년 5 월 24 일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의 한국법인¹(이하 사노피)이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맞이해 진행한 '착한걸음 6 분걷기' 캠페인은 지난 한 달간 58,457 명의 시민 참여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진행됐다.

올해 '착한걸음 6 분걷기' 캠페인은 유전성 희귀질환과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알리고 가족검사 문화 확산을 위해 ▲사노피 ▲대한의학유전학회 ▲(사)한국희귀·난치성질환연합회가 함께 힘을 모았다.

지난 4 월 22 일부터 한 달간 모바일 걷기 앱 '워크온'에서 진행된 온라인 걷기 챌린지는 시작 사흘 만에 목표 걸음 10 억 보를 돌파하며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. 또한, 지난 13 일 세빛섬 야외 행사에 마련된 지압길 체험 '착한걸음 Zone'에는 약 2,000 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희귀질환 환자의 아픔에 공감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. 이번 캠페인을 통해 기부된 총 걸음 수는 13,317,745,911 보로, 이는 약 지구 253 바퀴에 달하는 거리다.

사노피는 걸음 기부 외에도 세빛섬 야외 행사에 뮤직 토크쇼 'Rare Disease 스테이지'(이하 RD 스테이지)를 통해 시민의 관심을 유도했다. RD 스테이지에는 희귀질환 환자를 포함한 4 팀의 뮤지션이 참여해 관객들과 함께 희귀질환 극복을 응원했으며, 대한의학유전학회 유전상담이사 이범희 교수와 함께한 별도의 토크 세션에서는 희귀질환 조기 진단 및 가족검사에 관해 이야기해 보는 유익한 시간을 마련했다.

박희경 사장

사노피-아벤티스 코리아, 스페셜티케어 사업부 대표

"희귀질환 환자분들을 응원하고 희귀질환 인식 개선에 앞장서주신 시민분들의 진심과 열정을 느낄 수 있어 큰 보람을 느꼈다"며 "시민분들의 열띤 성원과 참여에 감사 인사를 드리며, 사노피 또한 앞으로도 희귀질환 환자분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모든 방면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" 고 말했다.

한편, '착한걸음 6 분걷기'는 희귀질환 환자들의 질환 개선 측정 검사인 '6 분걷기' 검사에서 착안한 시민 참여형 캠페인으로 희귀질환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힘써왔다. 특히, 올해 9 회 차를

¹ 사노피의 한국법인인 사노피-아벤티스 코리아(대표 배경은), 사노피 파스퇴르(대표 파스칼 로빈), 오펜라헬스케어코리아(대표 정경희) 중 본 보도자료는 사노피-아벤티스 코리아에서 발행한 보도자료입니다.

맞이하여 희귀질환 조기 진단 및 가족검사의 중요성을 주제로 희귀질환 인식 개선에 앞장서며 희망의 걸음을 모았다.

사노피(Sanofi)에 대하여

사노피는 '인류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과학적 기적을 추구한다'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입니다. 저희는 전 세계 100 여 개국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며 의료 현장(practice of medicine)에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사노피는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중심에 두고,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치료 옵션과 생명을 구하는 백신을 공급합니다.